出土日：一九六四年 三月 二十七日

出土由來：정성수 정상만 兩人에 依하여 山에서 갈퀴발에 걸려 나왔다 함。

이 遺物들을 살펴 보면 三國時代 貴族階級에서 使用하였던 婦人裝飾具들이다。出土遺物 全體를 보아서 相當한 副葬品들이 있었으리라고 推測되나 餘他遺物은 알 길이 없다。入手된 遺物은 珠玉 釧 金珥 等 三點이다。珠玉에는 翡翠硬玉 監色硝子珠 瑪瑙珠 水晶珠 勾玉等인데 이것들은 瓔珞의 貫絲가 腐蝕되는데서 흩어져서 出土된 것이고 釧은 五片으로 折斷되었고 그나마 破片이나 銀心에 鍍金한 것 같으며 金珥는 一雙에 一個만 있는 것이다。

三國時代 百濟와 新羅는 智異山을 中心하여 國境線이 된 것인 바 智異山 西側에는 長水(百濟兩坪縣) 南原(百濟 古龍郡)과 東側에는 居昌(新羅 居烈郡、居陁) 安義 雲峰(新羅 母山縣 景德、阿英城 阿莫城)이 있었음으로 이번 長水郡 出土 遺物은 이같은 地域의 初有의 遺品으로 推測되는 바이다。

一、瓔珞 一連

1、翡翠硬玉 一個 不等邊四角形 廣面 一cm 厚 六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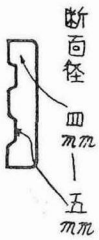
2、藍色硝子珠 約 二五〇個 徑 一・二cm—三mm

3、瑪瑙珠 三個 大二個 徑 一cm 小一個 徑 一・七mm

4、水晶珠 一個 立方形

5、勾玉 一個 長 二・九cm

二、釧 五片 斷面隋圓形 斷面徑 四mm—五mm



三、金珥 一個 細環 徑 一・八cm

青銅禁口銘文 追記

李 浩 官

德壽宮美術館에 所藏된 禁口로서 考古美術資料集「金石遺文」에 실린것 中에서 追後 調査에 依하여 새로히 判讀된 部分이 있음으로 그 部分을 追記하며 銘文이 記錄된 새로운 青銅禁口를 아울러 紹介하여 두고자한다。

一、大定九年銘禁口 (金石遺文 一六一面)

(大定九年己亥(丑?)五月 日祝聖壽萬年國內泰平) 干弋永息法界生□共證菩提結愿四衆各證福壽先□父母自他一時成佛 迲(道) 歲主衛尉王夫同正李公弼書者氏

〔( )안은 旣히 判讀된 部分〕

二、壬午銘飯子 (金石遺文 一七六面)

(壬午四月初六日奉) 夫□福(資?)(寺飯子□公州戶長具義晴□長上戶長二長命原州人馬長命次知大師虐修是亦中聖衆金)諸 (人長命)

〔( )안은 旣히 判讀된 部分〕

三、青銅盤子

圓形으로 同心圓이 陽刻되었고 中央 撞座에는 乳狀紋이 있다。兩耳는 環狀으로 口緣에 一七三字의 銘文을 刻字하였다。時代는 李朝中葉以後에 屬하는 作品이 아닌가 생각되며 高麗時代의 盤子에 比하여 몹시 둔한 感을 주고 있다。記錄을 보면 一九一〇年 一月 十九日 日人 近藤佐五郎으로부터 四〇圓에 購入한 것으로 되어 있다。

實測値 徑 四〇・七cm 側幅 九・八cm

銘 文

十八年壬辰六月 日逍遙峯逍遙寺施主 京畝驪州居乾命乙酉生童蒙金泰鎭庚寅生童蒙金永鎭兄弟壽命長脩富貴功名子孫昌(昌?)盛大發願 癸巳生童蒙金海鎭壽命 長脩發願

新羅 階段隅石의 新例

申 榮 勳

新羅統一期 建物基壇에 附設되었던 階段隅石의 遺例는 不幸히도 豊富하지 못한 형편이다。

佛國寺極樂殿 基壇前面 階段의 隅石처럼 外表를 層級두어 깎아들어간 비교적 單純型의 것과 靈岩寺址 佛殿 基壇前面의 階段隅石같이 外表에 浮彫를 새긴 文樣型等 統一期全般에 각가지 모습으로 발달된 것들이 있었겠으나 系統을 찾아 分類할만큼 多樣한 資料를 갖고 있지 못하다。最近 月城郡 內南面 南澗寺址에서 出土되어 金剛池 堤防의 用材로 쓰였다가 다시 發見되어 慶州博物館으로 옮겨진 隅石의 二枚은 이렇게 零星한 隅石遺例에 훌륭한 資料를 添加하여 주었다。

南澗寺出土 與否와 使用된 殿名 등은 지금 알 길이 없으므로 편의상 둘을 따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하겠다。

〔其一〕花崗石製、用尺은 唐尺으로 推定됨。比較的 完製品、底邊長 一・九七曲尺 높이 二・一九曲尺、內面에는 階段石과 接合하였던 흔적이 흐릿하게 보일뿐 아무런 장식이 없고 外表에는 斜面아래에 三角形 바탕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 斜面과 並行하는 한단 낮은 帶狀을 마치 副緣처럼 새겼다。隅石 前端에 水平머름을 두었다。一見 佛國寺極樂殿・雙峰寺大雄殿 등의 隅石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전체의 모양은 二等邊三角形처럼 보인다(圖面一參照)。

〔其二〕花崗石製、用尺은唐尺으로 推定됨、比較的 完製品、底邊長 一・九五曲尺 높이 一・六八曲尺

其一과 같은 基本形態를 一部變形하여 斜面을 四分圓으로 둥글리고 副緣같은 그 帶狀形새김도 그에 따라 역시 둥굴렸다。底緣에 異例的인 弧形線을 두어 마치 첩차의 刳形비슷한 모습을 만든 것이 눈에 뜨인다。이 曲線의 處理에 있어 唐尺二寸의 方眼對角點과 나머지 對角線의 二分之一點을 연결하는 弧線을 그은 것은 特히 注目된다(圖第二의 A・B・C點의 연결선)。其一의 水平머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圓頭를 만들고 게눈을 새겨 마치 심방목머리처럼 보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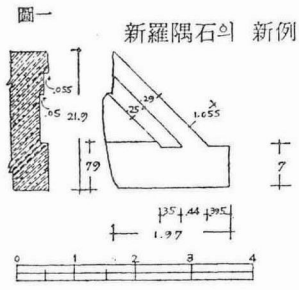
壁石의 上面 即 隅石幅에 해당하는 面에도 其一石과는 달리 장식을 하였는데 四分圓部에는 細衣의 끝단처럼 上面幅을 等分하는 凸線이 있고 圓頭上面中央에는 五瓣의 單瓣蓮華文을 놓았다。外表 上面과는 달리 內面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은 其一과 같으나 단지 圓頭에만은 게눈을 새겼다。다듬은 모양은 너무 거칠지도 너무 곱지도 않은 중간쯤의 다듬짐을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亦是 南澗寺址에서 옮겨 갔었다는 심방목형의 石材一片이 發見되어 隅石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石材의 모습은 마치 丁字形인데 橫行部는 문지방에 해당되는 部材이고 縱行部는 심방목재이다。심방목재는 內外端을 直切한채 아무런 무늬를 베풀지 않았다。심방석 안몸윗면에 문지둘이를 끼울 구멍이 파졌는데 화금을 끼웠는지는 당장 알아낼 수 없었다(圖第三)。심방목의 中心線과 문지방의 中心線이 交叉하는 部分에 方溝를 파고 기둥의 촉을 받도록 한 것은 四天王寺址 遺構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문지방이 심방석 보다 〇・一三曲尺 운두를 높게 가졌다。이러한 심방석과 문지방의 모습은 義城塔里石塔初層塔身前面 門扉에서 찾을 수 있고 문지방에 홈을 파서 石材기둥을 세운 例는 靈岩寺址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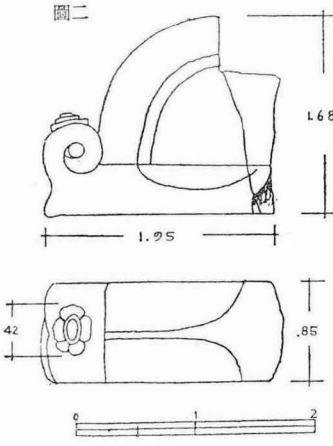
擧論하고 있는 遺例 즉 문지방돌에 木材 혹은 石材의 기둥 중 어느 것을 세웠는지는 調査에서 發見할 수 없었다。

돌의 깎음은 隅石과 마찬가지로 거칠지도 곱지도 않다。花崗石材・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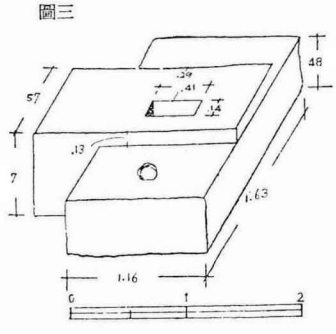
圖一 新羅隅石의 新例



圖二



圖三



尺亦唐尺 統一新羅代의 作品으로 보인다。

考古美術 ㅓ—ㅅ

◎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 第八次調査

本調査團은 一九六七年 一月 二日부터 十二日까지 十一日間에 걸쳐 第八次 調査로 太白山地區 第三次調査를 實施하였는 바 그 槪要는 다음과 같다。

參加者는 秦弘燮 鄭永鎬 文明洙 金和英이며 現地에서 安東郡 敎育廳 安承一氏와 한국일보 特派記者 李長春氏가 參加하였는데 그 日程과 調査遺物은 다음과 같다。

二日……서울發 竹嶺着

三日……忠北 丹陽郡 大崗面 召也洞寺址(石佛立像 拜禮石)——白龍寺(龍華殿內 石佛坐像)

四日……喜方寺(大雄殿內佛幀、乾隆七年銘銅鐘、三層石塔)——留石庵(石佛坐像、石塔)——豊基靈田寺布敎堂(石佛立像、蓮華臺石)

五日……安東西岳寺(石造遺物 十一點)——安奇洞 三層石塔

六日……安東禮安磨崖石佛立像

七日……內淸凉寺 (琉璃寶殿、淸凉精舍、琉璃寶殿內木造地藏菩薩、同殿內藥師如來坐像、同殿內菩薩坐像、石佛坐像)

八日……外淸凉寺(應眞殿 同殿內三尊佛、金塔峰獨聖坐像)

九日……安東網川寺址石造毘盧舍那佛坐像

十日……安東羅所洞三層石塔

十一日…慶州佛國寺釋迦塔調査

十二日…歸京

◎ 서울 三陽洞에서 金銅菩薩立像 出土

一月 二十四日 서울市 城北區 三陽洞 山一〇八(十六統 四班) 朴龍出(男五二)氏宅 後便에서 下水道를 파다가 發見되었는 바 同氏에 의하여 靑錆가 除去된 後 二月 三日 東國大學校博物館에 鑑定次 持參되었었다。 그리하여 現品 및 現場을 調査하여 三國末의 作品임과 古代寺址로 推定하는 동시에 發見者로 하여금 二月 七日 文化財管理局에 申告하고 現品을 引渡케 하였다 (卷頭寫眞)

◎ 皇龍寺心礎舍利殘留遺物의 調査

秦弘燮氏는 一月 二十六日부터 三日間、昨年 十月 十二日 경주市 皇龍寺址 中央礎石 舍利孔에서 收拾된 舍利藏置 殘留品에 대한 調査를 完了하였는 바、破片의 方形石蓋의 復元과 四天王이 陰刻된 外函銅片과 內函部片 圓形銀板(雙鳥紋)銅製壺蓋등이 注目되었다。 이곳에서 盜取된 舍利具는 昨秋 押收되어서 國立博物館에 保留되었는데 殘留品과 더불어 앞으로 그 調査報告가 期待된다。

◎ 實相寺 三層石塔과 同 百丈庵石塔 調査

昨秋 被害가 報道된 以上 諸塔에 대하여 一月 二十七日 黃壽永 申榮勳 兩氏의 現場調査가 이루어졌는 바 모두 塔身 등에 人爲의 破損이 確認되었다。 특히 百丈庵塔에 있어서는 二層塔身과 同 屋蓋받침에 破損이 甚하여 舍利藏置를 盜取하려던 行爲에 起因함이 明白하였다。 이 날 兩人은 南原 禪源寺의 寶物指定의 鐵佛坐像、雲峰女院峙磨崖佛 및 雲峰碑의 破片(三片) 등을 아울러 調査하였다。

◎ 堤川 長樂里七層模塼石塔의 調査

二月 一日 黃壽永 申榮勳 兩氏는 慶州에서 上京途中 堤川에서 이 塔의 現況을 調査하였는 바 第一塔身 東南部가 數年前보다 더욱 破壞되고 西方으로 傾斜되어서 倒壞될 危機에 놓여 있음을 確認하고 그 對策을 現場에서 論議한 바 있었다。

◎ 山淸 斷俗寺址 西三層石塔 解體修理

一月 二十一日 着工、一月二十八日 復元組立을 完了、初層身石上의 圓形舍利孔內의 舍利藏置物은 過去에 盜取되었고 孔內에는 濁水가 고여 있었을 뿐이다。

◎ 海南 大興寺 北彌勒庵 三層石塔 解體修理

一月 六日 着工 一月 十一日 復元組立을 完了、上基壇內部自然板石上에서 銅造如來坐像 一軀를 發見(總高 十二㎝ 膝幅 七·五㎝)。